

배움의 삶 · 나눔의 생활화 · 생명공동체 실현

경기불교

• 발행처/ 경기불교문화원 • 이사장/ 김태제 • 발행인/ 진철희 • 편집인/ 권중서, 용민숙 • 주소/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3가 101-3 4층
• 전화/ 031)251-1083 • FAX/ 031)257-1083 • http://www.paragate.org • E-mail : budsos@paragate.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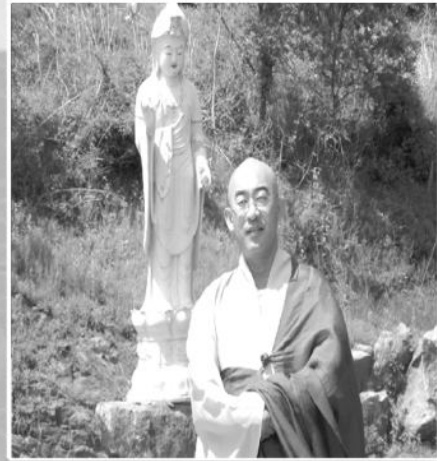
백신에게 듣는다<쉰찬번째>

석일봉 스님 열린법회

- 주제 : 불교란
- 일시 : 불기2551(2007)년 8월 18일(토) 14시30분
- 장소 : 경기불교문화원 큰 법당

[석일봉스님 약력]

- 한국불교통신전문대학 대학원삼장학과
- 동국대학 대학원 불교학과
- 경기대학원교정교화과
- 한국불교통신전문대학장 역임
- 달라이라마 평화상 수상
- 현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



8월 사찰문화 답사

석창원(세미원), 현등사, 도솔천사

- 일 시 : 2007년 8월 19일(일)
- 출발지 : 8월 19일 오전 7시30분 경기불교문화원앞
- 동참금 : 3만원
(중식/간식/여행자보험/사찰입장료포함)

8월호

아들도 감동한 부처님의 요도



조계종 포교사/본원이사/ 권중서

○ 력 7월 보름은 참으로 아름다운 날이다. 불자들은 부모님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사찰을 찾아 정성스럽게 叩기도를 한다. 선망부모의 왕생극락과 현생부모의 수명장수를 바라고 또한 자신의 불효를 부처님께 참회하여 효자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룩한 날이다.

백중, 우란분절의 유래야 불자들이라던 다 아는 이야기이지만 부처님이 전생에 행한 효도의 이야기는 참으로 귀한 말씀이다. 내 몸 귀한 줄만 알았지 부모님 몸과 마음 귀한 것을 알지 못한 불효의 죄를 뉘우치고자 현우경 제7 수사제품의 이야기를 전한다.

『그 때에 아난이 부처님께 사뢰길 “아까 부처님을 모시고 성안에 들어가 결식을 할 때에 눈먼 부모는 성문 밑에 있는데 그 어린 아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사방으로 다니면서 물건을 구걸하여 밥이나 나물이나 과실을 얻으면 그 맛나고 좋은 것은 먼저 부모에게 공양하고, 부스러기나 냄새나고 나쁜 것은 제가 먹으면서 날마다 그렇게 하였나이다. 참으로 사랑하고 공경할 만 하였나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집을 떠난 이나, 집에 있는 이가 효도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공양하면 그 공덕은 특별하고 뛰어나 헤아리기 어렵느니라. 자세히 듣고 잘 기억하라.”

“옛날 무량 무수한 아승지 곱에 ‘특차시리’ 라는 나라에 ‘제바라’ 라는 왕이 있었다. 그 왕에게는 10명의 아들이 각각 여러 나라를 다스렸고 그 부왕 곁에는 ‘라후’ 라는 대신이 있었는데 그는 늘 반역할 생각을 품고 있다가 끝내 대왕을 죽이고 차례로 9명의 왕을 죽이고 이제는 제일 막내 태자 ‘수바라제치(善住)’ 왕을 죽이려 하였다. 이 소식을 접한 왕은 아내를 데리고 아이(善生)를 안고 서로 의지하며 다른 나라로 떠나려 하였다. 마음이 황급하여 한사람의 7일분 양의 양식만 준비하여 14일 걸리는 길로 들어서고 말았다. 며칠이 지나자 양식이 떨어져 굶주리고 헤매었으나 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는 아들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곧 그 아내를 죽여 스스로도 살고 또 아이도 살리려 하였다. 아내가 아이를 업고 앞서 가게 하고 그 뒤에서 칼을 빼어 아내를 죽이려 했던 것이다. 때에 아이는 뒤돌아보다가 아버지가 칼을 빼어 어머니를 죽이려 하는 것을 보고 합장하고 아버지를 깨우쳐 말하였다. ‘원컨대 대왕이여 차라리 나를 죽일지언정 우리 어머니는 죽이지 마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간하여 어머니의 목숨을 구하였다.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말하길 ‘나를 단번에 죽이지 말고 조금씩 살을 빼어 먹으면 며칠은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부모는 슬피 울면서 번민하다가 어쩔 수 없이 날마다 빼어 먹으며 살은 차츰 없어지고 뼈마디만 남아 있었다. 그 부모는 아이를 버리고 떠나려 하였다. 아이는 말하였다. ‘내 목숨은 아직 조금 있습니다. 원컨대 부모님은 가진 그 살을 조금만 내게 주십시오.’ 부모는 그의 살을 세 뭇으로 나누어 두 뭇은 자기네들이 먹고 나머지 한 뭇과 부스러기 살과, 눈, 혀 따위는 아들에게 주고 떠났다. 그 아이는 곧 서원을 세웠다. ‘나는 지금 몸의 살로써 부모님께 공양하였다. 이 공덕으로 불도(佛道)를 구하고 일체 중생을 두루 제도하여 그들로 하여금 온갖 괴로움에서 벗어나 열반의 즐거움에 이르게 하리라’ 이렇게 발원할 때에 삼천세계가 진동하였고 육계와 색계의 여러 하늘들은 깜짝 놀라 무엇 때문에 궁전이 흔들리는지를 몰라 하늘의 눈으로 세상을 살펴보다가 보살이 몸의 살로 부모께 공양하고 불도를 이루어 중생을 건지리라고 서원하는 것을 보고 이에 하늘들은 모두 내려와 허공을 덮고 슬피 울었다. 때에 제석천은 내려와 시험하려고 거지로 변하여 남은 살점을 구걸하여 아이는 그것을 보시 하였고 다시 사자로 변하여 아이를 잡아먹으려 하였다. 아이는 생각하여 ‘이 짐승들이 나의 몸에 아직 남아 있는 뼈와 살과 골수를 먹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조금도 후회하지 않았다. 그때에 제석천은 그가 가진 뜻이 흔들리지 않은 것을 보고 제석천의 몸으로 돌아와 말하길 ‘네 효도는 능히 몸의 살로 부모님께 공양하였다. 그 공덕으로 무엇을 구하려 하는가? 제석천인가 마왕인가 혹은 범천왕인가’ 아이가 대답하길 ‘나는 삼계의 쾌락을 원치 않습니다. 이 공덕으로 불도를 구하여 일체중생을 제도하기를 원합니다.’ 제석천이 다시 물었다. ‘그러고도 부모에게 원한이 없는가?’ 아이가 말하길 ‘나는 지극한 정성으로 부모님께 공양하였으므로 털끝만큼도 원한이 없습니다. 만일 후회함이 없이 내 소원대로 부처가 될 수 있다면 내 몸을 본래와 같이 되게 하여지이다.’ 이 서원을 마치자마자 몸은 곧 회복되었다. 때에 제석천과 여러 하늘들은 ‘장하다’ 고 칭송하였고 그 부모와 온 나라 사람들은 전에 없던 일이라고 찬탄하였다.”

부처님은 이어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그 때에 선주왕은 바로 지금의 우리 아버지 정반왕이시고 어머니는 바로 지금의 어머니 마야이시니라. 그 때의 선생 태자는 바로 지금의 나이니라. 나는 과거 세상에 효도하는 마음으로 부모께 공양하고 몸의 살로써 부모님의 액을 구제하였다. 그 공덕으로 천상이나 인간에서 항상 뛰어나고 높은 집에 태어나서 한량없는 복을 받았다. 또 그 공덕으로 스스로 부처가 되었느니라.” 그 때에 대중들은 부처님께서 스스로 전생인연을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모두 슬피하고 한탄 하면서 동시에 부처님의 특별하고 뛰어난 효도의 행에 감격하였다.”

부모는 자식위해 자신의 살점을 떼어주어도 자식이 부모님 위해 고기 한 점 공양 올리며 감사의 뜻 전한일 있는가?
7월 보름 밝은 달을 보기가 부끄럽구나. **경기 불교**

현대 트랜스
포장이사 · 일반이사 · 사다리
031)297-2000 / 011-733-1985

FILA 동수원점
대표 : 이명준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95-5 (밀레니엄프라자 103호)
TEL : 031)205-4311 H.P : 011-345-6887



여주교도소에서 온 편지...

-오세암을 보고-

여주교도소 수행자

삼보에 귀의 하옵고, 언제나 고마우신 법사님께 두 손 모아 서신으로나마 인사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 중생들을 구제하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신지요. 그리고 그동안 부처님의 가피와 함께 평안하셨는지요?

저는 상해치사 등으로 6년6월 징역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불자입니다.

이 곳 여주교도소에서 생활하며 힘든 것이 역시나 뵈고 싶은 분들이나 그리운 분들을 못 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한 가지 덧붙인다면 그렇게 못 뵈는 그리움을 안고 보기 싫은 사람들과 함께 피할 곳 없이 지내야 한다는 것이겠고요. 대신에 태풍, 장마, 폭염, 폭우, 폭설과 같은 피해 속에서도 먹을 것과 잠잘 것에 대한 걱정이나 혹은 그 때문에 피해 입을 것에 대한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으니 修行者로서는 최선의 환경이라는 생각도 드는군요.

부족한 근기로 인하여 이런 기회에서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박복한 困緣으로 이런 시간에도 궁급하고 모자란 부분을 마음껏 여쭙고 가르침을 받을 법사님을 뵈 기회가 제대로 없음이 안타깝지만 모든 것이 저의 지은 바대로 받는 것일 테니 그것도 감내해야 할 몫이라는 생각도 하였습니다.

존경하옵는 법사님!

지난 번 법회 때 상영한「오세암」을 보고난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느덧 제 자신이 깊은 산속 외딴 암자에 폭설로 인한 눈 속에 홀로 갇혀 추위와 허기, 공포 속에서 스님이 돌아오시기만을 기다리는 다섯 살 「길손(Gilson)」과 15척 담장에 가려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조차도 허락되지 않는 나의 처지를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오세암의 천진난만한 개구쟁이 「길손」의 佛性과 어른 되어 오탁에 찌든 저의 불성, 마치 거울에 비유하면 「길손」은 처음부터 때가 없는 거울이고 저는 때가 낀 탁해진 거울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길손」과 저와의 공통점은 산꼭대기 「오세암」과 「15척 담장 안 감옥」이었습니다. 그러나 큰 차이점은 천진난만한 길손에게는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빨리 만나고 싶어 하는 간절한 기다림의 관세음보살님께 ‘一念’, 한 생각’ 지성 기도로 눈 속에 갇힌 출고, 어두운 암흑과 공포의 세계로부터 벗어나 매일 그리워했던 어머니와 만나 즐겁게 노니는 극락과 광명세계로 현실의 불안한 고통을 완전히 뛰어넘어 크고 넓은 자유의 즐거움 속에서 관세음보살(어머니)과 노니는 맑고 밝은 행복한 「길손」의 모습을 보고 느꼈습니다. “비록 몸은 죄인 되어 갇혀 있어도!.....마음은 자유롭게!”라고 말입니다. 貪瞋癡 三毒心을 버리고 경계에 끄달리지 않아 탁 트여 있는 마음, 텅 비어 오히려 짝 찬 청정한 마음을 되찾자! 라고 결심하였습니다.

“一切中生悉有佛性”이란 말대로 제 불성을 찾도록 修行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마장에 끄달리지 않고 오히려 내 수행을 이끌어주는 벗으로 참된 도반으로 알고 忍耐하며 수행하겠습니다. 극한 상황에서 오직 한 마음 어머니(관세음보살) 一念으로 부르던 「길손」을 통해서 관세음보살은 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 생동하는 관세음보살이 되어야한다는 것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심 걱정하는 경계가 닳치는 순간, 그 안팎의 모든 경계에 대하여 지극한 마음으로 염불하여 절대적 존재에 의지함이 없이 모든 것은 내 안으로 돌려놓고 觀하여 放下着 念佛修行할 것입니다. 出所에 대한 집착심마저 내려놓고 그저 如如하게 평온에 머물며 懺悔하겠습니다. 오히려 내 뜻에 맞지 않는 사람들로 내 주위를 장엄하고 원림을 삼아 我相과 고집, 그리고 교만심을 닦아내며 我相을 녹이는 修行도 해보려합니다.

고요한 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님”을 부르며 장애에 부딪칠 때마다 이곳보다 모든 상황이 좋지 않았던 「오세암」과 「길손」을 생각하며 수행자로서 忍耐하며 순간순간 깨어있어 현재에 충실한 수행자가 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수행자로서 마음의 상태와 精進만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세암」이란 화두로 부족함 많은 자신을 되돌아 볼 수 있어 ‘얻은 것이 많은’ 시간이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자주 법체를 돌보셔서 건강하시기만을 기원 드리며 불보살님의 가피와 호법 신중님의 가호가 법사님의 불사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두서없는 난필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成佛하십시오. **경기 불교**



* 백중과 나의 어머니 *

소프라노 秀藝 김혜은



우리불교에서는 조상님들과 선망 부모님들께 극락왕생을 지성으로 발원하며 49일 동안 지장보살님을 염원하며 지성으로 천도해드리는 의식이 음력 7월 보름 백중이다.

백중은 우란분재일(盂蘭盆齋)이라고도 한다. 우란분경(盂蘭盆經)에 따르면 부처님 당시부터 행해졌던 큰 법회 일이며 선방의 해제(解制)날이다. 부처님 10대제자중 한 사람인 목련존자께서 어머니 청제부인이 지옥고(地獄苦)를 겪는 것을 보고 안타까이 여겨 어떻게 하면 어머니를 지옥에서 구해드릴 수 있을지 부처님께 여쭙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효자인 목련존자에게 백중날이자 하얀 거 해제날인 이날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고 염불 독경한 그 힘으로 모두 다 건져질 것이라고 하셨다. 이것이 백중의 유래라 한다. 백중의 깊은 의미는 조상을 생각하고 밝은 곳으로 천도시키는 마음이 바로 자기 뿌리를 생각하는 마음이다. 칠석을 지내며 내 마음을 밝히고 또 백중을 맞이해서 일체 조상님들과 나와 인연된 무명 영가들과 유주무주 모든 일체 인연 영가들과 더불어 같이 밝게 해주는데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번 백중기도는 음력 5월 26일에 입재하여 음력 6월 3일에 1재를 시작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7재를 49일 동안 올려 백중보름에 회향을 한다. 금년 백중에는 대전계룡산 동학사에 속해있는 관음암에서 찬불가 지도와 함께 기도를 하게 되었다. 온화하신 부현 주지스님은 어머니와 같은 따스함으로 나를 맞이해주셨고 보살님들과 기도올리고 찬불가 공양을 하는 가운데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나의 어머니를 생각하게 되었다. 이제는 나의 곁을 떠나셨지만 항상 따스함으로 나를 지켜 주신 나의 관세음보살님이신 어머니! 오늘 어머니가 너무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우리를 위해 공양 지으실 때 부처님께 올리실 공양미를 따로 정성스럽게 보관하셨다 절에 가실 때 더욱 정성껏 가지고 가서 부처님 전에 공양 올리셨던 어머니모습이 지금도 나의 기억에 선명하기만하다. 살아 계실 때 효도를 다하지 못한 나의 잘못을 삼보님 전에 깊은 마음으로 참회 드리며 지장보살님께 어머니의 극락왕생을 발원 드린다.

이번 백중기도 동안의 찬불가 지도는 주로 영가님과 관세음보살님을 찬탄하는 곡들을 보살님들께 지도해드렸는데 보살님들의 열의와 원력이 무척 깊이 느껴졌고 계룡산의 수려함과 장대한 위용과 어우러져 물소리와 바람소리 계곡의 푸르름과 어우러져 화엄의 연화장 세계를 그대로 느낄 수 있었다.

고즈넉한 관음도량에서 관세음보살님의 따스함으로 지장보살님의 원력으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기도로 발원하며 어머니와 조상님들 일체인연영가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서울로 돌아왔다. 경기도

*** 날으실 때 아픔을 기쁨으로 아시고
기름 제에 괴로움을 자비로 써 달래신
바다 같은 어머니의
크나크신 은혜를 삼보님께 아뢰니 살피옵소서...

나무지장보살마하살
나무지장보살마하살
나무지장보살마하살

7월 후원회비 내주신 분들 (1,715,260원)

정성어린 후원금 감사합니다.

김태제, 진철희, 권중서, 장명순, 윤영무, 윤광숙, 김용필, 조권형, 장용집, 홍인숙, 최명길, 이기순, 이선우, 김영희, 이대곤, 조창윤, 진주범, 정무근, 이상범, 김기현, 구광국, 이임성, 김말수, 김준옥, 안영찬, 이영옥, 최정자, 김영동, 박선현, 김은주, 이태순, 진상범, 민춘홍, 조명숙, 이남덕, 김순옥, 김준호, 양준영, 송경주, 최숙련, 양희선, 박진배, 조정자, 손용식, 이사현, 주인수, 황주호, 이수교, 배정희 박정자, 공석남, 서상열, 김재숙 참선반 포교사단,

+ 양재홍 치과의원

사무실 031)241-1004 / 원장실 031)248-1616

수원시 팔달구 지동 427번지

한방각비 전문점 고향숯불각비

대표 : 김 항 식

수원시 장안구 정자2동 정자시장내

TEL : 031)256-0339 H.P : 016-425-4896



은행나무 큰 절 용문사, 사나사

본원이사/포교사/윤광숙

장마철이라서 여인지 차 안에 빈자리가 더러 보였지만 언제나 사찰답사는 설레이고 즐겁다.

오래전부터 가보고 싶던 은행나무 절 “용문사”를 머릿속에 그리며 같이 오지 못한 딸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울창한 숲과 내(川)가 어우러져 더없이 시원하고, 아름다운 모습은 마치 내가 동화나라에 온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했다.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크고 우람해 보이는 은행나무의 모습은 1100년의 삶을 살아온 모습답게 고고함과 신령스러움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져 합장하고 선채로 삼배를 올렸다.

이 은행나무는 신라 경순왕의 마지막 태자 “마의태자”가 나라를 잃은 설움을 안고 금강산으로 가던 도중 심은



것이라는 전설이 있다. 그리고 조선 세종 때 정 3품의 품계도 받았고 생물학적 자료로도 가치가 높아 천연기념물 30호로 지정 보호되고 있단다. 그리고 현재는 은행나무를 보러 전국에서 관광객이 찾아와 절 살림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 매년 14가마의 은행을 생산하여 보탬을 주고 바라느바 없이 주기만하는 은행나무에 대한 고마움의 생각이 그대로 묻어 나오는듯한 부주지 스님의 말씀이시다. 이렇게 은행나무가 1100년을 세월과 같이한 세 가지 조건이 있단다.

첫째, 水량이 풍족하고, 둘째, 지리적으로 산이 둘러 쌓여있어 태풍과 재해를 막아주고, 셋째, 해우소가 자연식으로 되어있어

나무의 뿌리가 양분을 섭취하여 장수한다고 한다.

지리적으로 전략적 요충지였던 용문사는 신라 신덕왕 2년(913년)에 대경대사가 창건했는데 세 차례의 전란을 겪었으며 6.25때 훼손된 것을 보수하여 현재 대웅전과 관음전, 종루 등 세 개의 부속건물이 있다. 기적처럼 보존된 “청동관음보살상과 부도는” 이 절의 유일한 성보문화재란다.

우리는 예정된 시간 때문에 아쉬움을 남기고 조계종 중흥조 태고 보우스님께서 수행하시던 절 양평 “사나사”에서 주지이신 ‘화암’ 스님의 법문을 들었다. 사나사도 대경대사가 건립하셨는데 역사가 용문사와 같이 1100년으로 시공을 초월한 삶을 창출해 부처님의 자비로 다스리고자 절을 짓고 수행케 하셨단다.

대적광전에는 비로자나불을 주불로 모시고 좌우로 노사나불과 석가모니불을 협시로 모셨다. 대적광전 우측으로는 원증국사(보우스님)의 석종형 부도와, 원증국사 석종비가 있는데 유형문화재 72호, 73호로 지정돼 있다. 그 앞쪽으로는 3층 석탑이 있는데 긴 세월을 말해주듯 빛깔 또한 창연하다.

합장한 두 손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우리의 가슴속에 연꽃을 피우니 그 속에 내 생명이 들어있어 바로 내가 부처라는 말씀은 무명에 덮인 나의 마음을 밝게 비추는 법신불이였는가 보다. 요즘은 마음이 무거워 우울해했던 내게 범종의 큰 울림소리는 번뇌망상을 한 순간에 날려 버리는 듯하였다. 간절한 마음으로 발원하며 사나사를 뒤로하고 세미원을 향했으나 밀린 차량들로 인해 되돌아 귀향길에 올랐지만 빛의 근원을 알면 고통은 애초 없다는 부처님(노사나불)말씀을 마음속에 가득 담아와서인지 그저 고맙기만 하다.

언제나 노심초사 답사원들의 안전과 행복한 여행을 위하여 애써 주시는 원장님, 간사님, 그리고 한 마음으로 따라주시는 답사원 여러분의 부처님 인연에 감사드립니다. -나무마하반야바라밀-

경기도

고품격 귀금속 전문점 - 노블젬스

대표 조 명 선

TEL. 031)212-4322 HP 011-9965-4322
 <수원시 영통구 매탄4동 200-22 한국2차A 상가 맞은편>

세종 법무사사무소

법무사 염 규 용

TEL. 031)212-0033
 H.P 018-313-3838



경기불교소식

● 백인에게 듣는다(쉰 번째)

불기2551(2007)년 7월21일(토) 오후 3시 백고좌 쉰 번째 기념으로 본원 큰 법당에서 박광서 교수님을 모시고 “불교의 미래”란 주제로 열린 법회가 있었습니다.



● 7월 사찰답사

(양평 용문사, 사나사)

7월 사찰답사는 양평 용문사, 사나사에 다녀왔습니다. 용문사의 천연기념물 은행나무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 백중(우란분절)맞이 천도재 안내

저희 경기불교문화원에서는 백중을 맞이하여 상제 선광부모와 이름 없는 어린 녀과 구전에 떠도는 유주무주 고훈 중음신과 업장 중생들의 고통을 불보살님의 위신력으로 천도하기 위하여 백중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일 시 : 불기 2551년 8월27일(음7월15일)오전10시30분
동참금 : 위패당 1만원

● 중앙국립박물관 사경변상도의 세계, 부처 그리고 마음 전

국립중앙박물관은 24일부터 시작해 9월16일까지 '사경변상도의 세계, 부처 그리고 마음' 전시회를 연다. 변상도를 중심으로 한 전시 품목은 100여점. 변상도 중 처음 공개되는 14점, 지정문화재 26점(국보 7점, 보물 14점, 일본의 중요문화재 2점)이 포함돼 있다.



문의전화. (02-2077-9000)

● 백담사 만해마을서 2007 만해축전 개최

시인이자 사상가, 승려이자 민족운동가였던 만해 한용운(1879-1944)의 사상과 문학을 기리는 '2007 만해축전'이 열린다. 8월 11~13일까지 강원도 백담사 만해마을에서 개최된다.



만해대상 수상자는 평화부문에 엘하지 오마르 봉고 은딤바(72)가봉공화국 대통령이며, 문학부에는 시인 김남조(80) 숙명여대 명예교수, 학술부분 문학평론가 유종호(72) 연세대 석좌교수가 수상한다. 또, 포교부분에는 루이스 R. 랭카스터(74) 전 버클리대 교수, 그리고 실천부분에는 네팔기자연맹(FNJ) 회장 비쉬누 니스트리, 특별부에는 서인혁(68) 국술원 총재등이다.

문의전화. (033-462-2304)

♣경기불교문화원(원장/진철희)에서는 8월5일~12일까지 참선도반들과 함께 선종 구법순례길을 떠났다. 초조 달마대사에서 육조 혜능대사들이 머물렀던 사찰과 암자들을 돌아보며 조사님들의 가르침을 회광반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전통불교문화센터 착공식

한국전통문화를 개발하고 육성하고 불교인재개발의 중심 시설이 될 조계종 전통 불교 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착공식이 7월13일 충남공주시 사곡면 운암리 마곡사 인근에 있는 센터 건립부지에 40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착공되었다.



♣국제템플스테이센터 조성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종훈스님)은 금년부터 3년간에 걸쳐 85억의 예산으로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국제 잼버리 야영장 부지에 건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용주사 정조대왕 승하 207주기 제향

용.건릉(사적 제206호)능침 사찰겸 대한불교조계종 제2교구본사인 용주사(주지/정호스님)에서는 8월10일(금) 조선22대 정조대왕 승하 207주기를 맞아 제향을 봉향한다.



- 베스트 불서 10권 -

1. 연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월호/마음의숲
2. 하루108배 내용을 살리는 10분의기적/김재성/아름미디어
3. 무문관에서 꽃이 되다/최민희편저/운주사
4. 정진/지광/랜덤하우스
5. 오대산 노스님의 그 다음 이야기/과경/불광
6. 바람 속 이야기/동학사편집실/운주사
7. 스님,마음이 불편해요/법륜/정도
8. 절을 기차게 잘하는 법/청견/벗디의 마을
9. 은둔/조연현/오래된 미래
10. 불교는 무엇을 말하는가/김윤수/한산암

2007년도 하반기 수강생 모집

수강기간 3~5개월 과정

과 정	과목명	강사명	수강인원	수강료	수업내용	수업일	비고
불교 강좌	불교의식	권혁찬	20명	3개월 60,000원	불교의식(목탁집전)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9/3 개강
	기본교리	전문법사	20명	3개월 50,000원	불교기초교리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9/6 개강
	위빠사나	이종숙	20명	15주 80,000원	법문, 경행, 좌선, 면담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경전강좌	정엄스님	20명	8주 100,000원	예불문, 반야심경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9/5 개강
	참선강좌	김태완	20명	4주 20,000원	참선법회	매월 첫째주, 셋째주 일요일 오후 1시	
	불교미술의 이해	권중서	20명	3개월 90,000원	한국 불교미술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수시
	노래교실	김혜은	20명	3개월 무료	찬불가	매월 셋째주 토요일 (법회후)	
	불교상담대학	스님및법사	40명	4주 50,000원	불교상담 전문인양성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문화 강좌	요 가	이수현	20명	3개월 90,000원	웰빙요가(주2회)	매주 월/수요일 오후 7시	수시
	단월드 (단전호흡)	백종복	20명	3개월 60,000원	단전호흡	매주 화/목요일 오후 3시	
	다도기초	홍인숙	20명	3개월 90,000원	생활다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9/5 개강
	수지침	박민선	20명	3개월 90,000원	수지침	매주 수요일 오후 4시	수시
	중국어회화	안미영	20명	3개월 60,000원	왕초보중국어 회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30분	수시
	영어회화	최영혜	20명	3개월 60,000원	왕초보영어교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수시
	경락	고철성	20명	3개월 90,000원	한방경락/건강관리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수시
초청 강좌	백인에게 듣는다	석일봉스님	100명	무료	주제: 불교란?	8월 18일(토) 오후 2시30분	매월
	사찰환경 답사반	권중서	40명	30,000원	석창원, 현등사, 도솔천사	8월 19일(일) 오전 7시30분	매월
산행상담	가정상담 · 불교교리 ☎ 031-251-1083						

■ 회원가입안내

경기불교문화원에서는 회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육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강의와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후원 회원에 가입하시면 1년간 "회원등"을 밝혀드리며 후원 회원님들의 회비는 본원의 운영과 소외된 이웃에 대한 배려와 나눔과 생명공동체 실현에 쓰여집니다. ※각종 후원금은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입금은행 : 신한은행 602-02-512120 경기불교문화원 김태제

- 후원회원 : 월 10,000원 (초.중등학생 : 5,000원) 이상을 납부하는 개인 이나 단체
 - 전화주시면 은행에 가실 필요없이 CMS로 즉시 처리하여 드립니다.
- TEL.031-251-1083/ 257-1083 (FAX겸용)